

Heading for Another 40 Years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 결과보고서



Contents



04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 개요	14	주요 전시품목 - 테마별 그린 IT 기술을 이용한 환경 보호
06	개막식 및 주요행사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	16	3D 3D 위성방송
08	전시장 투어	18	U-헬스 U-헬스의 시작
09	최점단 전시회	19	디지털 방송기기 차세대 디지털 방송
10	이제는 입는 컴퓨팅 시대로	20	차세대 컴퓨팅 컴퓨팅의 미래를 초월한 미래
12	브라운아이드걸즈가 빛낸 한국전자산업대전	21	가전제품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주방
13	한국전자산업 50년사 아시아 전자산업 대표기관 협력 MOU 체결식	22	보안기기 가족을 지키는 사이버 보안
		23	레고키트 초급 엔지니어를 위한 디지털 키트



25 주요 전시품목 - 부문별

| ICT | IT is my life

25 | 멀티미디어 | 2009년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26 | 카일렉트로닉스 | 자동차도 IT다

27 | 부품 | 차세대 IT 부품

28 주요 기업 인터뷰

기술력을 인정 받은 닛산(NISSAN)

미래의 파트너를 찾는 엡손(EPSON)

초 절전 디스플레이 편광필름(3M)

로봇이 자전거를 타다(MURATA)

고객들의 관심을 소중히 여긴 머크(MERCK)

3D의 선두주자, 레드로버(REDRIVER)
 녹색 성장의 주역, 'PoC' (에이스전자기술)
 새로운 3D 체험을 제공한 현대 IT

32 보도현황

34 수출상담회

해외 그룹바이어 수출상담회

Visitor - 캄브리지대 첨단광학전자소자 연구센터
 바이어

그룹 바이어

36 개최실적

38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

01_2009 한국전자산업대전 개요

개요

일시/장소

2009. 10. 13(화)~10. 16(금), 4일간 / KINTEX 5개홀(전관)

목적

- 전자산업 수출증대 및 내수시장 활성화
- 신기술 및 시장정보 교환
- 신성장동력 등 한국의 전자,IT 정책 및 기업투자 전략 소개

전시규모

면적 53,541m²

참가업체 16개국 865개사 약 2,439부스

전시관 구성 (6개부문 3만여점)

멀티미디어 LED TV, 전자칠판, 3D, 방송, 게임기 등
정보통신 차세대컴퓨팅, 그린PC방, 휴대폰, 게임전용노트북 등
컨버전스 카블랙박스, 충돌방지시스템, 디지털방송, 디지털병원 등
반도체 SSD, 모바일 TV용 One Chip SoC, 모바일용 3D 그래픽
가속칩

디스플레이 Flexible A-Si LCD, AMOLED, 3D 전용패널 등
일반부품 LED 소자, 바이오섬유, MLCC, 케이스, 충전기 등

추진기관

주최 지식경제부, 경기도

주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후원 KBS, MBC, SBS,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전자신문



13일 한국전자산업대전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줄을 서있다.





관람객들이 미래지향 가전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13일 한국전자산업대전에 참가한 업체관계자들이 출입증을 받기위해 줄을 서있다.



외국 방문객들이 입장하기 전에 대회장 로비를 둘러 보고 있다.





관계자들이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식을 기다리고 있다.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

“당신은 미래를 만나는 최초의 목격자가 된다!”라는 테마를 내건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KINTEX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식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조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권오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권영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을 포함한 1,000여 명이 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전의 한국전자산업대전이나 여타 행사의 개회식과 달리, 이번 전시회는 6명의 VIP 인사들이 차례로 한국전자산업대전의 조명 로고를 밝히는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화려한 개회식 축제의 막이 열리면서 관람객들의 환호성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

고 남녀 모델들이 다양한 IT제품 옷을 입고 등장한 ‘웨어러블 IT 패션쇼’는 오늘 개회식에서 가장 빛이 났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꼽혔습니다.

이어진 인기 여성 아이돌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특별공연으로 개회식에 참석한 내빈과 방문객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IT와 연관되면서 그 동안 한국 전자산업 발전의 중심 축이 되어온 한국전자산업대전의 개회식답게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자산업이 소개된 지 어느덧 50년이 흘렀습니다. 전자산업대전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한국전자전과 국제반도



관람객들이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식과 함께 멋진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참석인사들이 한국전자산업대전 시작에 이어 개막 축하 점등식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자산업대전 개막식장 VIP 테이블의 모습.



| 개막식 |

내용

전자산업 유공자 훈포상, 참가업체대표 초청 리셉션, 개막선언
전시회 소개 영상물 시청, 축하공연 등

참석

지경부장관, 경기도지사, KEA 회장, KSIA 회장, KDIA 회장,
KOTRA 사장, 유관기관장, 업계 대표 등 1,000여명

내용

전자산업 유공자 훈포상, 참석업체대표 초청 리셉션, 개막선언
전시회 소개 영상물 시청, 축하공연 등

일시

2009. 10. 13(화) 11:00~13:30

체대전,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 국제IT융합전시회가 통합된 전시회로서 가전용품, 첨단 IT기술 상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품 뿐만 아니라 의료, 자동차, 건설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IT제품 분야에서도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IT산업 규모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크지만,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이렇다 할 두각을 나타낸 전시회는 없었습니다.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의 개막은 아시아에서 동종의 전시회로는 두 번째 큰 규모를 자랑함으로써 이번 전시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초석을 쌓았습니다.

우선 이번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은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전자산업 및 전시회와 관련한 대표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참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HP, 닛산, 3M을 포함한 약 865개의 회사가, 참가국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16개국이 참여했습니다.

둘째, IT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입니다. 인도, 라틴 아메리카,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온 대략 3,000명의 잠재적 바이어를 위해 다양하게 구성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산업대전은 일본(CEATEC), 대만(Taitronics), 홍콩(HKEF)에서 열리는 전자산업 전시회 일정과 연계되어 편리함과 시너지효과를 더했습니다.

셋째, 방문객들이 다양한 첨단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 가능한 디지털 체험 전시회입니다. 주최측에서는 방문객을 위해 Bio-IT, 텔레매틱스, 신소재를 특색으로 한 신성장동력관, 굿디자인관, 그리고 차세대 컴퓨팅 테크놀로지 쇼를 선보였습니다.

넷째, 전시회 내내 첨단 디지털 전자와 IT산업에 대한 정보 교류가 매일 이루어지는 디지털 정보 교류의 포럼으로 국제IT융합회의,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 세미나, 그린 IT, 3D 워크샵, 차세대 컴퓨팅 심포지엄, 표준화 세미나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학회와 세미나를 열어, 세계 최초 44나노 DDR3 디램, 0.18미크론급 복합고전압소자(BCDMOS), 디지털 선박, 웰페어융합플랫폼, 스마트 그리드, U시티 등 많은 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02_ 개막식 및 주요행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강홍식 마케팅 지원센터장(좌)이 전시부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홍보 도우미가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에게 모노 레이저 프린터를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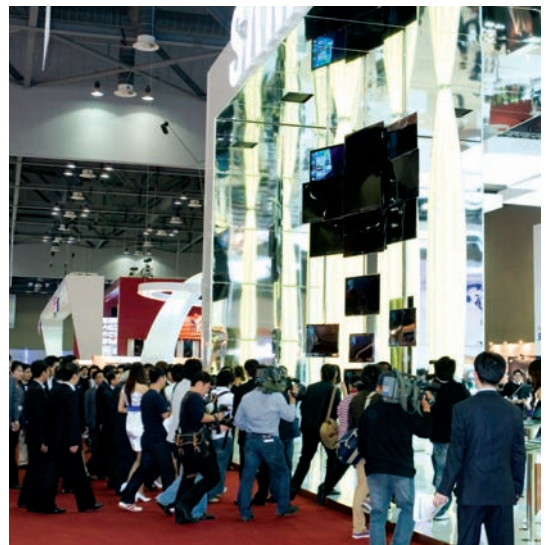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가운데), 권오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우)을 비롯한 주요 참석인사들이 대화장을 들어보고 있다.

전시장 투어



권오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좌),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우)가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수많은 보도기자와 관계자들이 취재를 위해 몰려 들고있다.



관람객이 모션 캡처가 활용된 권투선수와 가상대결을 벌이고 있다.



관람객이 3D 시뮬레이터를 체험해 보고 있다.



무라타 보이가 첨단제품 시연회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최첨단 전시회

최첨단 전자 엑스포에는 흥미롭고 색다른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3D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기술, 로봇, 그리고 휴대폰 등 모든 제품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전자산업대전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방문객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상 물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는 모션 캡처, 자전거 타는 로봇, 그리고 의류에 접목된 컴퓨터 패션쇼 등입니다.



관람객들이 삼성 친환경 휴대전화를 사용해 보고 있다.

02_ 개막식 및 주요행사



차세대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컴퓨팅 기기를 접목한 새로운 감각의 미래지향 패션 디자인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이제는 입는 컴퓨팅 시대로

2009 차세대 컴퓨팅기술 전시회는 “IT 리커넥트”라는 주제하에 최고 수준의 한국 IT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휴먼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그린 컴퓨팅 등의 주요 기술이 인간, 기술, 자연의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환상적인 공연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차세대 패션쇼는 외관, 기능, 패션을 하나의 결합적 통일체로 만드는 기술 혁신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패션쇼에서 선보인 것들이 실생활에 쓰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10~20년 내에 급격하게 바뀔 것입니다. 기술 혁신은 사이보그에서부터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무척 다양했는데, 미다스 터치는 바로 그 중 하나였습니다.

미다스 터치는 간격속에 실제 느낌을 가미한 모션 기반의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3차원 공간에 있는 여러 사용자 사이에 손가락은 물론 몸 전체의 현실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공하는 모션 기반의 비접촉 멀티포인트 상호작용 기술입니다. 이것은 3차원 공간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입력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터치 센스가 장착된 소형 3D 포인팅 디바이스가 있고, 비전 트래킹을 사용한 모션 기반의 3D 멀티포인트 상호작용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터치 센싱과 햅틱 피드백을 위한 통합 햅틱 인터페이스와 햅틱, 오디오, 비디오 신호의 융합을 이용하는 인터랙티브 UI가 있습니다.

섬유 디스플레이 기술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은 광섬유나 발광 다이오드(LED), 다른 전자섬유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옷에 입힌 활동적인 이미지나 텍스트를 보여주는 기술 및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웨어러블 컴퓨팅 리서치팀은 피코 프로젝터와 컴퓨터가 내장된, 목에 설치하는 컨셉 PC를 디자인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실생활 개체와 상호 작용하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인간의 몸을 전송매개체로 하는 인체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인 인체 통신기술(Human Body Communication)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터치 기반 사용자 인증, 전자 결제, 전자 명함 카드, 터치 기반 광고, 전자 건강관리, 그리고 웨어러블 PC를 위한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첨단 패션쇼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태양 전지였습니다. 태양 전지 배터리는 태양을 이용하여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충전합니다. 이것은 의류에 놓여진 장치들에 얼마든지 동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패션쇼에서 선보인, 의류에 놓여진 장치에 동력을 공급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인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를 에너지의 근본 소스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대개 하베스팅 시스템은 인간의 신체에서 에너지를 축적, 저장하며 나중에 그 동력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컴퓨터 기기를 접목한 미래지향 감각의 패션디자인을 통해 최고 수준의 한국 IT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02_ 개막식 및 주요행사



브라운아이드걸스가 개막식 축하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브라운아이드걸스가 빛낸 한국전자산업대전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아이돌 그룹 중 하나인 브라운아이드걸스가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불러모은 브라운아이드걸스는 개막식의 열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몫을 해냈습니다.

브라운아이드걸스는 자신들의 대표 곡을 부르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무대를 못내 아쉬워할 만큼 그들의 무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전자산업 50년사



관람객들이 한국전자산업 50년사를 돌아 볼 수 있는 전자기기들을 둘러보고 있다.



아시아 전자산업 대표기관 협력 MOU 체결식



한중 전자산업 대표기관 협력 MOU 체결식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이 상호협력을 전제로 한 MOU를 체결하고 있다.

03-1_ 주요 전시품목-테마별 | 그린 IT



관람객들이 전력소모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친환경 디스플레이를 둘러보고 있다.



전력소모를 낮춘 그린 PC 솔루션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



삼성 LED TV 8000은 자연환경 모드를 제공 함으로써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6가지 다양한 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최초 석면 미검출 인증을 받은 LG 트롬세탁기.



LG 태양광 충전 전자책 단말기.



외국 관람객이 삼성 친환경 모니터를 보고 있다.

기술을 이용한 환경 보호



그린 IT는 모호한 면이 있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몇몇 소비자들은 정확히 무슨 기준에 의해 친환경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삼성과 LG는 다양한 자사제품을 활용하여 친환경의 뜻을 명확히 하고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E200Eco는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이 잘 어울리는 작고 심플한 휴대전화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옥수수를 비롯한 그 밖의 식물로 만들어진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폴리염화비닐(PVC)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의 제조 과정은 일반 플라스틱보다 훨씬 환경 친화적입니다. 더불어 브롬계난연제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휴대전화의 장점입니다.

LG도 이번 전시회에서 여러가지 친환경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첫번째는 태양광 충전 휴대전화입니다. 기기의 뒷면이 하나의 큰 태양 전지로, 10분 충전하면 3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LG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장 스콧 안(Scott Ahn)은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단말기에 재생 가능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한 예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고객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LG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책임의식을 갖는 생활 양식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계속할 것입니다.”라며 친환경 제품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LG는 태양광 충전 전자책 단말기도 전시했습니다. 이 단말기는 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왼쪽 커버 안에는 태양 전지 패널이, 오른쪽 커버에는 전자책 스크린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린은 충전하기 위해 햇빛 아래에 책을 두면, 읽기가 다소 불편할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사용 가능한 전자책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발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관람객들이 LG X-note 친환경 넷북 컴퓨터를 사용해 보고 있다.



관람객들이 친환경 자동차 기기들을 사용해 보고 있다.



LG 홍보 도우미들이 트롬 세탁기, DIOS 냉장고, 휘센 에어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03-1_ 주요 전시품목-테마별 | 3D



관람객들이 현대 IT 부스에서 3D 드라이브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레드로버의 3차원 모니터를 구경하고 있다.



3차원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실시간 위성 입체방송을 제공하는 스카이 라이프.



관람객들이 24인치 3차원 고휘도 디스플레이를 체험하고 있다.

3D 위성방송

진정한 3차원 사진과 동영상 기술이 한국 전자산업대전을 빛내주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3D위성방송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회에 참여했는데, 2010년 1월에 3차원 교육 콘텐츠방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

도록 빨리 3D 방송에 착수하기 위해, 자회사 SKY HD를 통해 직접 3D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3D 방송은 주위를 집중하게 하는 효과덕분에,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물체를 만드는 싸이로드 3차원 프린터.



LG 3차원 LCD TV.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최첨단 LG U-헬스 시스템.

U-헬스의 시작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의 가장 무거운 주제 중 하나로 꼽혔던 것은 바로 U-헬스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당신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다른 전자 기계와 달리, U-헬스는 문자 그대로 당신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혹은 인체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예를 들면 썸텍(Sometech)의 고해상도 3D 복강경 검사 시스템)은 의사로 하여금 짧은 시간 안에 더욱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항시 의료 전문가들과 연락할 수 있게끔 해주는 환자 모니터링 제품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사고를 줄이고, 머지않아 우리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의사로 하여금 짧은 시간안에 효과적으로 환자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는 3차원 복강경 검사 시스템.

03-1_ 주요 전시품목-테마별 | 디지털 방송기기



대한민국 디지털방송 기기의 선두주자 에이스텔, 진명커뮤니케이션즈, 인터엠.



차세대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은 한국이 내세울만한 탁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2005년, 한국이 S-DMB와 T-DMB 서비스를 시작한 첫번째 국가가 된 이래로, 관련 기업들은 해당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에이스텔(Acetel)은 가장 정교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옵션을 제공하는 최첨단 디지털 방송 설비를 자랑스럽게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최고의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방송 안테나 또한 선보였습니다. 조명 및 방송과 같은 다른 전통적 시스템이 이들 기술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관람객이 디지털방송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03-1_ 주요 전시품목-테마별 | 차세대 컴퓨팅



디지털 아티스트가 캐리커처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



관람객이 원버튼 프린터를 작동시켜 보고 있다



넷북을 활용한 첨단 미래 디자인.

컴퓨팅의 미래를 초월한 미래

컴퓨터를 입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두 가지 의문점이 곧바로 생각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컴퓨터가 잘 수행하도록 어떻게 조종할 것이며, 그 동력은 어디에서 얻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도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말합니다. 인체의 전형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해내는 장치들은, 안경을 통해 오직 당신만이 볼 수 있는 컴퓨터 구성 요소를 전체로 합쳤습니다. 당신이 걷는 동안 이 쪽으로 갈지 저 쪽으로 갈지 손가락 움직임 한 번이면 인터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고, 정보를 불러오는 일 역시 당신의 간단한 명령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기술들은 몇 달 내지 몇 년 안에, 전 세계가 마치 공상 과학 영화 세트처럼 서서히 변할 때까지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03-1_ 주요 전시품목-테마별 | 가전제품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주방

지금의 과학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있어 심지어는 우리의 주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G가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표현한 가전제품 중 하나인 휘센 에어퀸은 주위 사람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 작동해야 할 때 작동을 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자동화 시스템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줄을 있는 최첨단 주방은 기구, 장치, LCD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을 모두 최신식으로 바꾸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락한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엑스트론 최첨단 보안 카메라

가족을 지키는 사이버 보안

다가오는 미래에서 컴퓨터는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 일상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갈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사는 우리는 지금처럼 개인의 안전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 보안 문제 또한 더욱 중요시 될 것입니다. 이번 한국전자전을 통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소개한 생체 인식 시스템은 사이버 테러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날려버림과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5대 CCTV 업체 중 하나인 삼보 하이테크는 가정용 보안 적외선 LED 카메라를 개발하여 소형 고효율 적외선 LEDs를 사용케 하였고 높은 해상도와 소량의 전류만을 소비하는 점 때문에 그 어떤 제품보다도 탁월한 우수성을 선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보하이테크 부스에 진열되어 있는 최첨단 보안 기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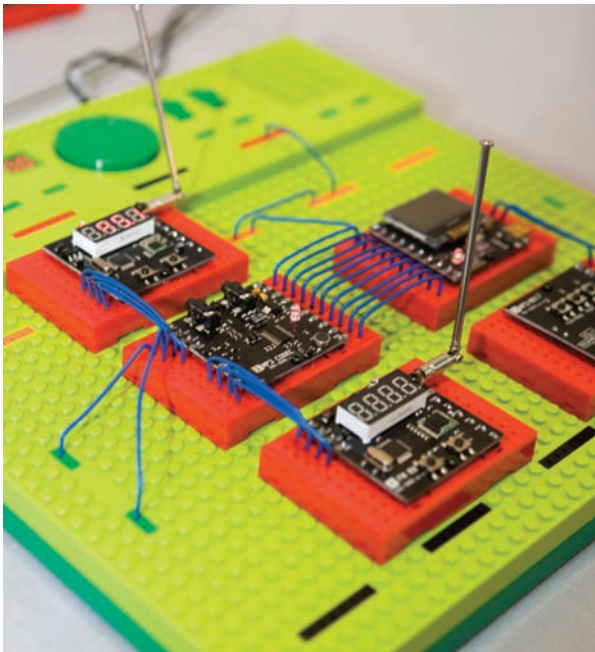
학생들이 디지털 레고 키트를 체험해보고 있다.



초급 엔지니어를 위한 디지털 키트

디키3000은 흥미로운 회로기판 교육 장치입니다. 학생들은 레고를 장난감놀이를 즐기며 MP3를 만들어 갑니다. 작은 플라스틱 블록 속에 끼우는 많은 전자 부품들이 부수적으로 같이 제공되고, 그것은 간단한 회로를 만드는 전선에 의해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분의 블록과 전선만으로도 Mp3 플레이어 레벨에 이르는 복잡한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회로를 연결하여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성이나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키3000은 플라스틱 블록을 활용하여 간단한 회로를 만드는 교육 장치이다.

03-2_ 주요 전시품목-부문별 | ICT



관람객들이 삼성 애니콜 옴니아2를 사용해 보고 있다.



최신 삼성 HMX-R10 캠코더.



어린이가 거대한 삼성카메라를 향해 신기한 듯 손짓을 하고 있다.

IT is my life

정보통신기술은 우리가 미래에서 찾아야 할 기술이 아니라 2009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로서 우리에게 무한한 편리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새로운 제품들 즉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갤러리, 넷북 등은 오늘날 우리 생활 깊은 곳에 자리잡아 이미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 애니콜 옴니아2



최신 LG 초콜렛폰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



게이머로 하여금 진정한
3차원 게임을 하도록 하는
LG Xcanvas 3차원 모니터



삼성전자 fingerslim 제품을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

2009년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멀티미디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들은 현재 우리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본질적인 존재로서 한국전자대전을 통하여 소개된 보더리스 TV와 전자칠판은 멀티미디어를 대표하여 우리의 미디어 소비생활에 밀접하게 다가 왔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생활에 수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멀티미디어 기술이 더 나은 기술을 지향하여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최초 TV화면과 테두리의 경계가 사라진 혁신적 디자인의 LG BORDERLESS TV.



극명한 명암비의 차이를 보여주는 삼성 LCD TV.



미디어 소비 생활에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전자칠판.



급정거와 충돌 방지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 닛산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자동차도 IT다

오늘날 전자기술은 자동차기술에 많은 영향을 주어 많은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의 기본 메커니즘은 여전히 기계적이지만, 수많은 모니터링, 조정, 보안 시스템 등은 점점 더 최첨단기술을 기본으로 한 전자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산업대전에 출시된 자동차 분야의 최신 제품으로 닛산의 충돌 방지 시스템, 아맥스의 블랙박스 개발 기술, 닛산의 뉴 스카이라인 스포츠카 등은 그들의 탁월한 성능과 디자인을 뽐내었습니다.



최신 닛산 스카이라인 GT R-35



차량용 블랙박스를 선보이고 있는 아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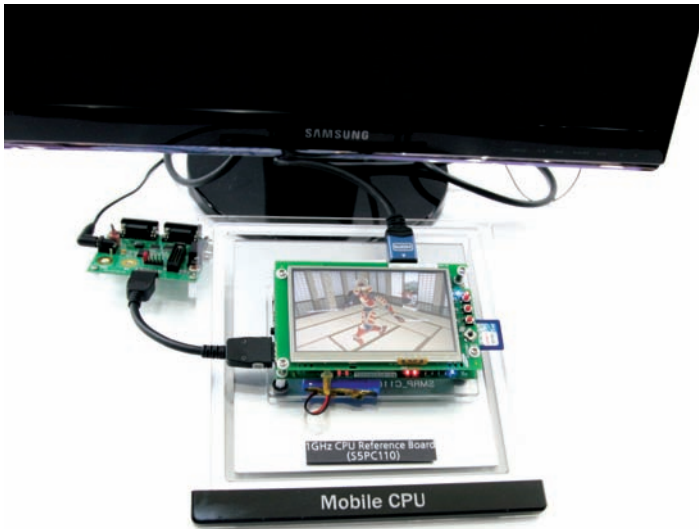
해외의 자동주차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 토마토전자.



어고노믹스의 다목적무인전기차

차세대 IT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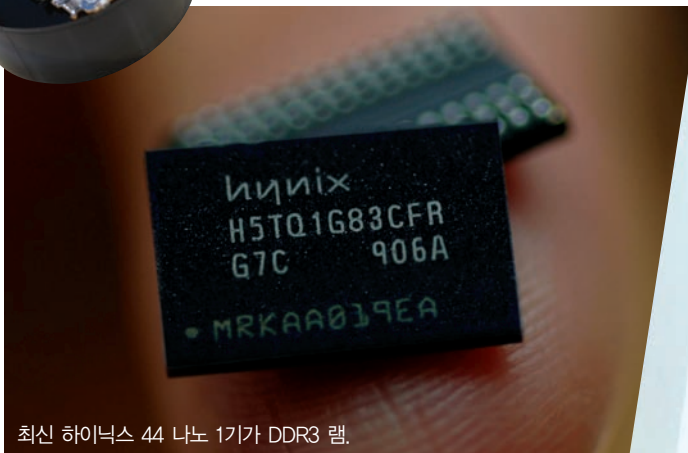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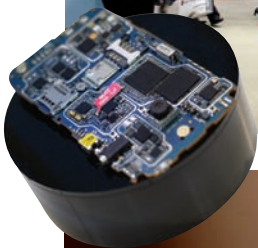
전자기술은 항상 단독의 기술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새롭고 혁신적인 기기를 선보이기 위해 수 많은 것들이 서로 결부되어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좋은 부품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장치를 얻는 것을 의미하며 아주 새롭고 성능이 향상된 부품들은 혁신적인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는 새로운 고체 상태의 하드 드라이브에서부터 전자부품연구원의 모바일 스마트 계량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삼성은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모바일 CPUs를 선보인 반면, 하이닉스는 최신 메모리칩을 선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부품은 올해 한국전자산업대전을 대표하는 전시품들 중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새기었다고 평가 됩니다.



관람객들이 LG 이노텍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씨엔전자 부스에서 반도체 기기를 살펴보고 있는 바이어.



최신 하이닉스 44 나노 1기가 DDR3 램.



기술력을 인정 받은 닛산(NISSAN)



닛산 스카이라인 GT R-35 스포츠카.

“닛산의 부스는 다른 어느 기업의 부스보다도 많은 방문객으로 붐볐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에 대한 방문객들의 지대한 관심

과 높은 참여는 눈에 띄었습니다. 스포츠카 GT-R 주위로 사진을 찍고자 하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라고 닛산의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닛산은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을 찾은 방문객들의 열띤 호응에 만족해했다는 후문입니다. 닛산의 한국 전자산업대전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큰 관심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닛산이 한국전자산업대전에 참여한 첫 자동차 회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닛산은 벌들의 군집생활에서 힌트를 얻은 충돌방지시스템을 로봇에 적용하여 소개했습니다. 또한 닛산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LDP)과 차간 거리 제어 시스템(DCA)이 어떻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운전을 가능케 하는지, 방문객들이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전시했습니다. 닛산의 기술 주력 모델인 슈퍼카 GT-R도 함께 이번 전시회를 빌어 선보여, 자동차 매니아의 시선을 한껏 모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 시장에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었던 닛산은, 다음 전시회에도 참가하여 최신 기술을 선보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닛산의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도와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도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닛산 BR23C 바이오메틱 로봇카.

미래의 파트너를 찾는 엡손(EPSON)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 기간 동안 우리 부스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라고 엡손의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성, LG와 같은 주요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과 미팅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찾는 대부분의 기업이 주로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엡손은 자사 제품 구매를 원하는 다양한 주요 기업들과 만날 수 있었던 이번 전시회 참가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꼭 한국전자산업대전에 다시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엡손의 새로운 제품을 보고있다.

초 절전 디스플레이 편광필름 (3M)



3M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



동일한 전력하에 밝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3M 모니터

쓰리엠은 전자 부품과 기기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쓰리엠은 바이퀴티(Vikuiti)라는 이름으로, LCD TV에 필요한 반사형편광필름(BDEF)과 같은 자사의 에너지 절약 전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반사형편광필름(BDEF)은 에너지 절약의 관점에서 다른 LCD TV 제품과는 다른 차원의 수준을 자랑하는데, 본 회사의 대부분의 기술이 이 바이퀴티의 반사형편광필름으로 압축되어 보여졌습니다.

바이퀴티의 반사형편광필름은 LCD TV 백라이트에서 32~35%, LCD TV에서 23~37%만큼 전력 소모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시야각 축소를 일으키지 않고도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가능케 하고, 더 적은 에너지의 사용과 적은 수의 전구, 낮은 온도에서도 동일한 밝기의 디스플레이를 유지시켜 줍니다.

쓰리엠은 자사 부스에서 바이퀴티의 반사형편광필름 기술을

이용한 자사 LCD 디스플레이와 일반적인 LCD 디스플레이 간의 간단한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전력을 감소시켰을 때 두 LCD 디스플레이 간에 나타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일반적인 LCD 디스플레이는 전력이 감소되자마자 꺼졌지만, 쓰리엠의 LCD 디스플레이는 전력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크린에 사진을 띄우는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밝기 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력이 증가했을 때, 두 LCD 디스플레이가 거의 같은 밝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이퀴티 반사형편광필름이 전력을 대단히 탄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높은 에너지 효율을 지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험에서 보았듯이, 우리 회사의 바이퀴티 반사형편광필름은 LCD 디스플레이에 대해 상당히 훌륭한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에 부합하는 기술입니다.”라고 이번 행사를 빌어 3M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로봇이 자전거를 타다 (MURATA)



일본 무라타제작소의 코이치 요시카와는 한국전자산업대전에 대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에 처음으로 참여한 무라타제작소는 LG와 삼성의 최첨단 제품들로부터 많은 감명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모든 전시품들로부터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의 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이 무라타제작소의 첫 전시회였지만, 사람들이 자사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로봇 무라타보이 및 무라타제작소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라고 요시카와가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의 성공적인 행사에 힘입어 다음해에도 기회가 되면 무라타제작소의 실력을 뽐내고 싶다는 말을 남기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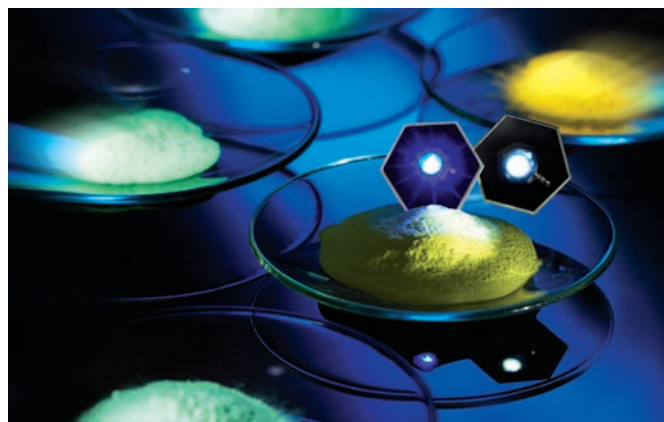
무라타 제작소는
자전거를 타는 로봇을
선보여 사람들에게 하여금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고객들의 관심을 소중히 여긴 머크(MERCK)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머크.

머크 또한 광범위해진 한국전자산업대전 컨퍼런스에 처음으로 참여한 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IMID)에만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머크는 디스플레이를 원료를 만드는 전문 회사로써 그 동안 매우 전문화된 전시회에만 참여해 왔습니다.



액정표시장치 구성 기기에 특화된 머크.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솔직히 작년부터 자사 사업에 별로 큰 변화가 없어서, 모든 일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와 함께 내년에도 전자대전에 참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우 전문화된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서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 또한 대단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3D의 선두주자, 레드로버 (REDROVER)



바이어들이 레드로버 3차원 디스플레이를 체험하고 있다.



“한국전자산업대전은 레드로버의 3D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필름과 방송 커뮤니티와 같은 전문 커뮤니티에 소개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습니다.”라고 레드로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촉발된 3D에 대한 관심과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R&D 투자로 현재 많은 성과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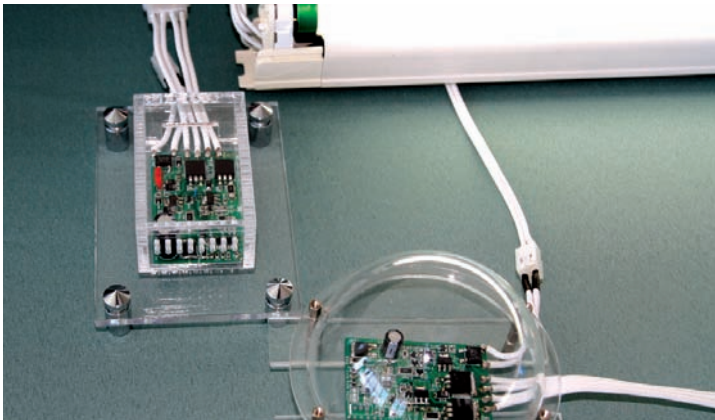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3D 기술에 대해 점차 늘어나는 관심과 수요를 채울 수 있는 하드웨어와 3D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3D에 관심을 갖는 최근까지도, 3D를 직접 경험하거나, 3D 전문가로부터 관련 정보나 지식 따위를 얻으려 갈 수 있는 이렇다 할 큰 행사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전자산업대전에 참가한 회사 중, 몇 안 되는 3D 전문기업인 레드로버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3D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과도 뜻 깊은 미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3D 커뮤니티와 전문가, 대중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한국전자산업대전 주최측과 월드 3D 엑스포를 개최한 3D 관련 협회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녹색 성장의 주역, 'PoC' (에이스전자기술)



바이어에게 PoC를 설명하고 있는 에이스전자기술 관계자.



크고 낡은 어댑터를 아주 작은 칩으로 대체하는 PoC.

대기전력 0.01W 전력사용 효율 30% 달성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에이스전자기술이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선보인 초소형 전력 공급 칩은 모든 전기를 필요로 하는 주변기기들의 콘텐츠와 어댑터의 크기를 칩 크기로 바꾸어 큰 전자전력산업에 커다란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에이스전자기술의 R&D팀이 이렇게 작은 전력 공급 칩과 50,000시간의 수명, 기존 LED 전원 공급의 5배의 힘을 가진 반도체 소자를 선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결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대만, 브라질을 포함한 여러 나라로부터 특허를 취득함과 동시에 골드만삭스로부터 초소형 전력 공급 칩 개발과 관련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우리는 골드만삭스, 대우 인터내셔널 등과 수 많은 중국 주요 기업과 상담하고 제휴를 맺느라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시회 후에도, 초소형 전력 공급 칩이 가까운 미래에 모든 전기 장비들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 기업들도 끊임없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소형 전력 공급 칩은 그린 IT나 에너지 절약 같은 환경 이슈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제품입니다.”라며 조영창 에이스전자기술 사장은 PoC를 설명하였습니다.

새로운 3D 체험을 제공한 현대 IT

현대 IT는 이번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에 참가하여, 3D 멀티비전, 2D/3D 실시간 변환 TV와 모니터, 그리고 3D 시뮬레이터 등 자사의 최신 3D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은 시뮬레이터를 시연하는 동안, 단순히 시각적인 면을 넘어서 자신의 온 몸으로 3D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6인치 3D 디스플레이 6대를 가로 세로 3X2 크기로 연계한 132인치 멀티비전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멀티비전을 통해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대단히 현실적이라 모든 관람객들의 주의를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2D/3D 실시간 변환 TV는 리모콘 버튼에 간단한 손놀림 한번이면 일반적인 이미지를 3D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시뮬레이터라 명명된 게임기가 사람들이 타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동차 경주와 롤러코스터와 같은 3D 콘텐츠가 스크린에 보여지면 탑승객은 3D를 넘어서 실제 상황을 체험을 하듯이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까지 포함하는 4D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현대아이티 관계자가 2D/3D 실시간 변환 TV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05_ 보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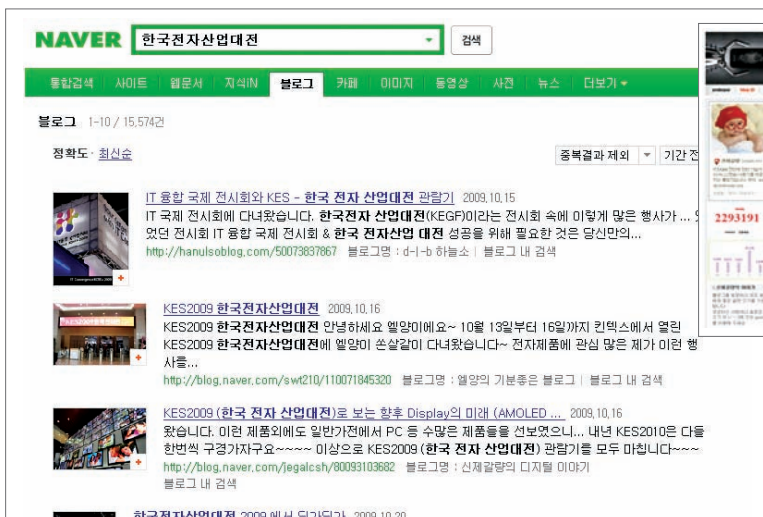
| KBS, SBS, WOW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조선일보TV 등 13건 |



| 코리아 IT 타임즈 |



| 블로그 등 1인 매체를 통한 KES 소개 (470여건) |



해외 그룹바이어 수출상담회

- | | |
|--------------------------------|------------------------------|
| 1) Korea IT Premium Good Plaza | 6) 중국 100강기업 초청 수출상담회 |
| 2) 브라질 방송기기 구매단 | 7) 중국 화창베이 유통상 초청 세일즈페어 |
| 3) 미국 방송장비 구매단 | 8) 중국 CECC(전자상회) 유통대표단 수출상담회 |
| 4) Russia 전자업계 초청 수출상담회 | 9) 반도체업체 초청 수출상담회 |
| 5) India 통신업계 초청 수출상담회 | 10) 대만 디스플레이업체 무역상담회 |

Visitor – 캠브리지대 첨단광학전자소자 연구센터

캠브리지대 공학부 첨단광학전자소자 연구센터 연구관계자인 마크 만(Mark Mann)은 이번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의 전시품들이 전시회에 진열되어 있는데, 저는 그 규모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연구하는 투명 산화 아연계 트랜지스터 분야의 이론적인 측면에 중사하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주로 실용적인 면을 연구하기 때문에, 제가 접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서 3D 디스플레이의 기술에 각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특수안경 착용이 필요없는 삼성의

glasses-free 3D display를 가장 인상 깊은 기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3D 기술이 나아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데 그도 동의했습니다. 또 캠브리지 대학이 우리나라와 몇가지 연구 협력을 같이 하고있는데, 불과 몇년 전에 연구했던 첫 아이디어가 지금 한국에서 충분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고 뿌듯해 했습니다.

바이어

에프로센트 테크놀로지(Eprocent Technology)의 동남아시아 담당 임원인 알로이시오(Aloysius How)는 “저는 우리 시장이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

록,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신 개발품을 주의 깊게 둘러보았습니다.”라며 이번 전자전에서 많은 바이어와 제품들을 만나 아시아 시장에 가져다 팔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을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에프로센트 테크놀로지는 모바일 폰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모바일전송기술 개발 현황이 일본과 미국에 견줄 만 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많

이 향상되었고 다른 나라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은 삼성과 LG입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확립할 공급 업체를 찾는 중이며,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이 전송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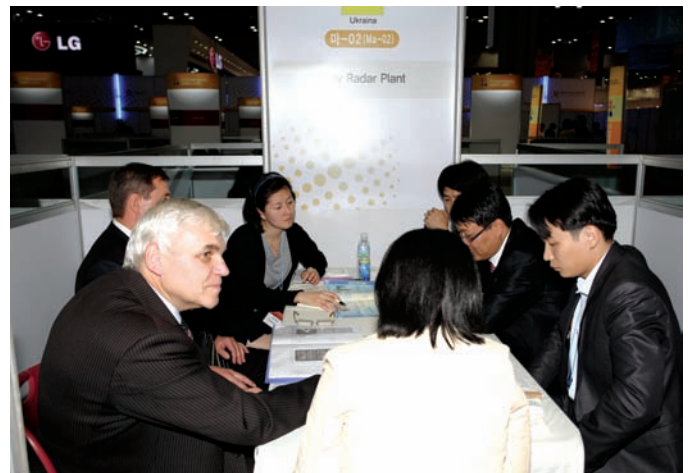
그는 마치 그가 고객들을 교육하기 위한 수많은 새 아이디어를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에프로센트 테크놀로지가 이 기술을 시장에 활성화 시킴으로써 자사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고 한국 업체와 새 시장을 함께 건설하고, 상호 이로운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능성을 꼭 이어나가기 위해, 그는 분명 내년에도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바이어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들.



여러 국가의 크고 작은 회사의 바이어들이 수출상담회를 통하여 한국 업체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그룹 바이어

인도정보통신산업협회인 CMAI 협회장 N K Goyal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2009 한국전자산업대전에 참석한 중요한 바이어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이 대표단은 통신 장비,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터키 솔루션, E-거버넌스 및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통신 기기 등을 다루는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도 정부와 이동통신국의 통신분쟁법원(TDSAT)의 대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하루 종일 비즈니스 미팅을 했고, 100여 곳이 넘는 한국 업체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표

단 개개인을 위한 통역 편의가 제공되는 등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마련된 준비는 아주 돋보였습니다.

CMAI는 지난 2008, 2009년 이래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비즈니스 대표단과 함께 한국전자산업대전을 방문해오고 있으며, 이것은 CMAI의 공식 연례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사가 진행한 전시회에 대해 규모도 크고 준비도 철저히 이루어졌으며 만족스러운 자체평가를 내렸습니다. 대표단에게 있어 몇 가지 주목을 끈 전시로는 비주얼 미디어의 3D 기술, 보안 장치, 그리고 인도 대표단의 관심을 한 몸

에 받은 인증 장치를 들 수 있습니다. CMAI는 앞으로 많은 인도 기업들이 그들 제품을 한국전자산업대전에 소개, 전시하는데 관심을 내보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인도 기업들이 한국전자산업대전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인도 정부가 전시회 참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Goyal이 관리 이사회원으로 있는 인도 이동통신국 산하의 통신수출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07_ 개최실적



참가실적

세계경제 불황과 내수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증가
- 부스는 342개(전년대비 +16%) 증가

구 분		2008년	2009년
참가업체	업체수	862개사	865개사
	부스수	2,097부스	2,439부스
참 관 객		54,482명	54,446명

상담실적

3D, 디지털방송/병원 등 테마 다양화와 러시아, 브라질 등 바이어 지역 확대 등
질적 양적 향상으로 전년대비 10.7% 상담실적 증가

상담실적상담액	2008	USD 14억
	2009	USD 15.5억



상담회 및 컨퍼런스

그룹상담회 중국 유통상 초청 세일즈페어, 인도 통신업계 초청 수출상담회 등 11건
컨퍼런스 3D엑스포, 그린IT, 디지털 방송장비 등 20회

보도

- KBS, SBS, WOW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조선일보TV 등 13건
-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313건
- 블로그 등 1인매체 470건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

전시회명 제 41회 2010 한국전자전 (Korea Electronics Show 2010)

주제 IT's my life

기간 2010년 10월 12일(화) ~ 15(금)

장소 KINTEX (일산킨텍스)

규모 면적 32,157m²

참가업체 650개사, 1500부스 (국내 450개사 / 해외 200개사)

참관객 80,000명

주최 지식경제부, 경기도

주관 KEA, KOTRA

후원 MBC, KBS, SBS, 한국경제, 매일경제, 전자신문

Tel. 02)6388-6061-8 **E-mail.** kes@kes.org **URL.** www.kes.org

전시품목

ICT

Telecommunication · Mobiles · Navigation · IP · Net Solutions · Antennas · Cable · Computing · PDA · Notebook
PC · Server · Solution · S/W · Storage

Imaging and Solutions

Beam-projector · Imaging Machine · Photo · Digital Camera · Printer · Camcorder · Memory solutions

Multimedia and Home Entertainment

TV · DVD · Home Cinema · 3D TV · IPTV · Monitor · HiFi · Loudspeakers · Games · MP3 · Hands-free



Home Appliances

Refrigerator · Air-conditioner · Vacuum cleaner · Washing machine · Dish washer · Coffee machine
· Electric toaster · Beauty care appliance · Kitchen appliance

Car Electronics and Securities

Black box · Car electronics · CCTV · Networks · Bio or Sign capture · Cyber security

Convergence and Other Applications

Broadcasting equipment and systems · Green IT · Digital lego · e-health · Product Design

Modules, Parts and Materials

LCD · OLED · LED · Solar · PCB · MLC · Capacitor · Resistor · PoC · Sensor · Switch

참가업체 지원 서비스

참가비 / 할인프로그램	구 분	
	독립부스	9m ² (1부스) 220만원
	조립부스	260만원

2010년 3월 31일내에 신청한 업체는 10%할인 / 2010년 5월 31일내에 신청한 업체는 5% 할인

바이어 프로그램

- 참가업체가 초청하는 바이어에게 숙박비(2박)와 항공료(편도)를 지원
- 신제품 발표 및 컨퍼런스를 위한 세미나룸 무료제공
- 통역
- 컨시어지 서비스 - 인터넷, 팩스 사용, 커피 등 음료제공
- 비즈니스 라운지

Edited and published by the Korea IT Times

Tel. 02)3459-0671 www.koreaittimes.com

IT's my life



KES 2010

October 12 ▶ 15